

자동차 드라이브 모드, 나는 어떤 모드가 어울릴까?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성향, 주행 환경 등에 따라 주행감을 변화시켜주는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콤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등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차량의 RPM, 변속 시점, 안정장치 개입 시기 등을 조절해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운전의 재미를 더해준다. '현대자동차'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35787715>)가 자동차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 설명했다.



■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면?

▶ 콤포트 모드

콤포트(Comfort) 모드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 일부 차량은 노말(Normal) 모드로 표기된다. 콤포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드는 차량의 주행감을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모드이다. 가속페달의 민감도, 제동력을 부드럽게 세팅하고, 변속 시기는 변속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최고의 타이밍에 이뤄진다. 콤포트 모드는 차량 탑승 시 가장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차량의 공인 연비 측정 시에도 사용된다.

■ 운전의 재미를 더하다

▶ 스포츠 모드

스포츠(Sports) 모드는 차량의 운동 성능을 높여주는 모드이다. 스포츠 모드를 사용한다고 엔진의 출력이 강해지지는 않지만, 가속페달이 민감해지고, 변속 시기를 늦춰 RPM을 사용해 차량 반응성을 높이는 등 차량의 가속감을 높여 준다. 또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져 정밀한 조향이 가능해 운전의 재미를 더한다.

다만 스포츠 모드는 연료 소비가 많아지고, 운전자와 탑승객의 피로도를 높여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는 추천되지 않는다.

■ 최고의 효율을 위해

▶ 에코 모드

에코 모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의 효율을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모드이다. 가속 페달의 민감도를 낮춰 급가속을 억제하고, 변속 시점을 제어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준다. 일부 차종은 최고속도를 제한해 불필요한 과속과 연료 낭비를 막아주고, 공기조기 역시 효율에 맞춰 최적화된다. 다만 에코 모드는 효율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급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 그 외 특별한 모드

기본적인 세 가지 주행모드 외에 일부 차종에는 커스텀(Custom) 모드와 스마트(Smart) 모드를 지원한다. 커스텀 모드는 운전자가 직접 엔진, 스티어링 휠 감도, 서스펜션 등을 본인 스타일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 모드는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학습해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중 적합한 주행 모드를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작동시켜주는 모드이다.

AWD(All Wheel Drive)가 장착된 일부 모델은 험로 전용 모드인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를 지원한다.



스노우 모드는 바퀴가 헛돌 때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힘을 보내 차량을 탈출 시켜주고, 머드 모드는 바퀴에 토크를 부드럽게 전달하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진흙길에서도 트랙션을 유지해 준다. 마지막으로 샌드 모드는 네 바퀴에 동력을 고르게 전달해 모래에서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동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한 대의 자동차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유용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적절히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평소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적절하게 활용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누리 보자.

사진=shutterstock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